

代가 降下하는 月精寺塔 淨岩寺塔 등의 金屬相輪에서 類例를 볼 수 있다) 다시 그 위에 水煙이 있는 바 등갈고 그 周緣에는 작은 圓形紋樣이 둘러 있으며 頂上에 이르러서는 둥근 龍車와 寶珠가 있고 이들을 꿰고 擦柱는 頂上에 이르러 한층 가늘어지고 말았다. 全高五六cm로서 그 中相輪部만은 塔頂으로부터 四一cm에 달한다. 樣式으로 보아서 相輪만은 金屬製를 模한 것으로 해석된다.

右塔..이 塔이 三塔中 가장 낮아서 現存하는 部分은 相輪의 上半部이다. 相輪二個와 그 위의 寶蓋와 立葉形 水煙과 龍車寶珠가 남아 있다 現高三五cm.

左塔..下部와 左上部가 缺失되고 있으나 塔身의 最上層 一部와 相輪部의 完形이 남아 있다. 相輪의 形式과 길이는 中央塔과 同一하다 全高四七cm(以上 三塔相輪樣式은 경주南山塔谷佛岩의 磨崖雙塔의 것과 比較할 만하다 「慶州南山佛蹟」參照).

四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塔頂만이 남은 이 方柱는 그 밑에 塔身部가 연숙되어 直立形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亡者의 資福을 위한 柱塔으로서의 造形으로 보고자 한다. 이같은 柱塔形式은 우리나라에서는 既知唯一의 稀貴한 것이나 經文②에도 보이는 바이며 또 日本같은 곳의 現存作品으로 ③서 傘塔 또는 相輪栱④같은 것이 이것과 比較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方形石柱에 塔形이 浮刻된 遺品이 慶州에 數個 남아 있는 바 모두 高約三四—四八cm의 斷片뿐이다. 그 中 이들과 같이 塔頂部를 가진 것으로서는 現在 慶州博物館에 移置된 一石이 있는 바 元來 栢栗寺에서 옮긴 것으로서 塔身三層과 相輪의 下半部만이 남아 있다(이 頂上部들의 存在로서 柱塔二基의 存在가 推定된다) 다음에 栢栗寺前庭에 는 이와 恰似한 石物二個가 쌓아올려 있는 바 細部에서 약간의 差異는 있으나 方柱各面에 同一樣式의 塔身部가 陽刻되어 있는 點은 모두가 同一하다. 그리하여 이들 計三石과 이 곳에서 소개하는 一石이 서로 有關한 것으로 보이나 單一柱塔의 部片으로 斷定하기는 어렵다. 이에 對하여서

는 따로 세밀한 復元考察이 있어야 하겠으나 各石이 모두 柱塔을 이루던 斷片으로서 모두가 栢栗寺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新例 一石 또한 栢栗寺에서 멀지 않은 慶州市 東川里 瓢岩下 公營成氏宅에 傳來하던 것이라고 한다. 끝으로 이같은 柱塔과 栢栗寺와의 關係인 바 上記한 바 六角石幢의 同寺傳來에서 미루어 追善供養을 위한 造形으로서 아마도 石幢과 거의 同代인 新羅下代로 推定하여 두고자 한다. 栢栗寺後嶺에는 異次頓墓⑤가 오늘날도 傳하여오며 同寺前庭 岩面의 磨崖層塔의 存在 등 關係 遺物 遺蹟의 調査가 綜合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七月七日).

註

① 本誌 四卷十二號(一九六三年 十二月) 뉴스欄 參照. 이石柱入手를

前後하여 石窟庵工事現場에서는 四天王北 寶塔이 出土되었으며 또 海雲臺觀光호텔마당에서 石造小塔이 發見되었다(本誌申榮勳氏論文 參照)

② 十誦律第五十六(望月..佛敎大辭典 塔條)

③ 日本 般若寺傘塔 

④ 日本 叡山 또는 日光山等に 建立되어 있는 바 이들은 相輪만을 세운 柱塔으로서 無垢淨光陀羅尼經에 의거하였다.

⑤ 異次頓傳說이 慶州金剛山頂과 그 西麓인 栢栗寺에서 墳墓와 供養塔 碑의 造營을 이루었다고 推定하여 石幢記文中의 「葬屍北山」이나 海

東高僧傳의 撰者 覺訓이 釋法空傳略에 「豫遊東都。登金剛嶺。見狐墳短碑。概然不能自止」이라는 文句를 다시 注目하는 바이다 (末松保和..「異次頓傳說의 發展」新羅史의 諸問題所收)。

恭齊의 旋車圖

孟 仁 在

지난 四月初 全南에 갔을 때 海南邑 蓮洞里 尹泳善氏宅에서 恭齊 尹斗



緒(二六六八)의 帖畫、障畫(이 中에 는 其의 自畫像도 有 었다) 등 數十點을 拜觀한 일이 있다. 이에 紹介하는 旋車 圖는 中「尹氏家 寶」로서 傳來되어 온 總四二葉의 畫帖(세

로 三三·五cm 가로 二九cm) 中에 들어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는 勿論 餘他의 遺作中에서도 가장 生氣있고 現實感을 풍기는 佳作이었다. 어느 製陶工房의(或은 鑪器工房으로도 짐작되는데) 이는 器의 倒置接着이 難 點인 대문에 이렇게도 생각한다) 한局面을 그린 絹本白畫(세로 三三·五 cm 가로 二〇cm)로서 能히 보기 어려운 지나가버린 當代風俗의 一面을 提示한다. 이러한 欲求에서인지 恭齊는 特히 이 그림에만은 右上部에 마 치 註를 달듯이 「恭齊彦戲作旋車圖」라고 簡單히 畫題를 墨書하였다. 斜 側面을 보이며 對座한 二人의 工匠사이 橫架한 「旋車」는 허리통에 감 긴 끈의 兩端을 번갈아 밟아당기므로서 回轉또는 反轉되는 것 같으며 한 쪽끝에 매달린 器皿은 相對方이 왼쪽 무릎위에 두손으로 끈아친 지렛대 모양의 대칼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있는 듯한데 혹은 처음부터 만들어지 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筆者의 見聞으로서 이와 같은 製器過程은 처음이나 당바닥에 곧게 깔린 흙부스러기와 大小器皿이 겹쳐져 있는 점 으로 짐작하건대 或은 乾燥에 先行하는 整形作業인지도 모르겠다. 끈을 밟는 양쪽발과 맞은편 人物의 양쪽다리의 놓임새에는 切實한 動態가 감 돌며, 上體의 가늠과 늑스구레하며 微笑하는 顔面表情에는 이 工房作業 過程의 機微가 如實히 풍겨지고 있다. 質朴하게 그려진 旋車, 工具, 鏡 上, 절터앉은 人物 등의 按配는 透視에 不自然하지 않으며 아울러 이들 器具의 單純한 物理的 操作과 함께 圓의 藝術이 生産되는 手工業의 淳朴 한 情趣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兩人의 고의잠뱅이와 頭巾은 唐衣의 그

것을 彷彿케 하며 後代 檀園이나 蕙園의 風俗圖에서처럼 鄉土色으로 미 처 풀리지 못한 觀念이 있다. 아무튼 恭齊의 鄉里에는 이와 같은 製器具 도 있었던가 하는 興味와 疑問은 아직 풀지 못했으나 이 旋車圖를 비롯 한 많은 習作中에는 이와 비슷한 鄉土感覺이 깃든 佳作들이 있어서 院 風一邊倒로 생각되던 恭齊의 畫境及至는 畫格도 再吟味 評價함이 어떨 까하는 希望을 갖게 한다.

### 貞昭公主墓出土 粉青砂器草花文四耳壺

鄭 良 謨

德壽宮美術館收藏品中에 表題의 항아리가 얼마로부터 本人의 注意를 끌어 온바 좀더 慎重을 期하여 이 資料를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이었으나 當初에 보고 느낀대로를 紹介하여 于先 先輩, 同學의 叱正을 얻으려 한 다.

粉青砂器印花文의 發生이나 發展을 考究하는데 官司銘이 들어있는 器 皿은 매우 貴重한 資料가 되어 있으며 그외에도 다른 銘文이나 一括遺 物이 있어서 印花文粉青砂器以外에 있어서도 그 研究에 많은 進捗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앞으로 胎 壺가 기지는 粉青砂 器와 白磁의 研究에 가지는 比重이 크리 라 생각된다. 粉青 砂器로 이제까지 세 世에 알려진 胎壺로 는 德壽宮美術館所 藏粉青砂器印花文胎

